

# 금정산 정상서 맞는 새천년 첫햇살

## 범어사 제야법회 연다

### 등반하기·국악공연·108타종 행사 부산 2백만 불자와 나라평안 발원

2000년을 연등으로 장엄된 금정산 정상에서 맞는다. 범어사(주지 성우)가 한세기를 돌아보고 새 천년을 맞이하는 제야법회를 기획, 금정산 자락을 연등으로 장엄하고 고단봉 정상에서의 해돋이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법회는 떠오르는 새 천년의 첫 햇살이 맨 처음 금정산을 비춘다는 한국천문연구소와 국립지리원의 조사결과가 발표된 이후라 더욱 뜻깊을 뿐더러 금정산 자락에 안겨 부산 불교의 중심을 지켜온 범어사가 부산의 2백만 불자와 시민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큰 법석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70년대 한두차례 산발적으로 치뤄지다 중단된 제야법회 제모습을 갖추어 맥을 잇게 된 것. 산사에서 보내는 제야와 첫 아침은 시작의 마음을 울리게 다짐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범어사의 설명이다. 범어사는 한세기를 정리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이어가려는 행사로 제야법회와 새 천년 맞이 1인 1등반하기, 산사의 국악공연, 새 천년 맞

이 108타종 등을 계획하며 새천년을 맞는 시작의 마음을 울리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2천년의 첫날 새벽 6시 31분부터 떠오르는 해돋이를 위한 고단봉 정상 오르기로 인한 시작의 걸음을 내딛게 된다. 많은 사람들의 발원으로 밝혀진 환한 연등 사이로 금정산을 오르며, 걸음 걸음에 새천년 부산의 도약을 기원하게

되는 것이다. 범어사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부산시민전체의 마음을 한데 모아 새로운 한세기를 준비하는 한편, 부산발전, 나라평안을 기원하는 큰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범어사의 제야법회와 고단봉 등반하기는 부산에서 12월 25일부터 1월 초순까지의 기간을 정해 기획 중인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천년맞이 문화축제"와 맞물려 부산전체의 축제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nia.com)

## 울산 정광사 낙성법회

### 법당·유치원·예식장 갖춰

동부경남지역에서 단일사찰로는 최대규모인 천태종 정광사(주지 영제)는 17.18일 낙성법회 및 삼존불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과 총무원장 문덕스님을 비롯한 1만 5천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치러진 이날 낙성법회에서 영제스님은 "지역민들을 위한 사찰이 되도록 노력 할 것이며 생활불교의 도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정광사는 지하2층, 지상 4층의 연면적 2270평 규모로 현대건축양식과 전통건축양식을 병행해 건축되었다. 대웅보전과 지관전은 작은 문화, 예술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며 유아 인성교육의 장인 유치원을 갖추고 있다. 또한 예식장과 작은 법당 등 소강당은 각종 세미나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공연의 장소로도 활용된다. 천미희 기자



화엄사는 19일부터 3일간 화엄석경 정대불사를 봉행했다.

## 화엄사 정대불사·수계법회

### 동오층석탑사 유물 330여점 발견...일반 전시

구례 화엄사(주지 종걸)는 19일부터 3일간 각황전에서 보성(승광사방장) 천운(항림사조실) 종걸(화엄사조실)스님들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화엄석경 정대불사 및 보살계법회를 열었다. 법회에 동참한 불자들은 석경경대요점에 참석하여 화엄경과 석경복사인쇄본을 머리에 이고 대웅전과 4사자석탑을 참배했다. 화엄사는 7일 기단의 균열과 이완으로 기울어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 보를 132호 동오층석탑을 해체 복원했다. 이때 발견된 부처님 진신사리 8과, 석경 326점을 보주에 전시하고 사리방, 사리함, 금관광배, 청동좌대, 용상방지, 구슬 21점 등의 유물은 문화재관리청에서 3·4개월 보존처리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1층 탐신부의 기단내 부에서 발견된 화엄석경은 탑의 속

채용용으로 사용된 것이다. 화엄사는 이번 동오층석탑에서 나온 부처님 진신사리천견법회를 17일부터 보주에서 2천년 10월8일까지 일반인과 불자들에게 공개한다. 화엄사의 화엄석경(보물 제 1040호)은 의상스님이 화엄사를 중창하며 장육전에 석각의 화엄경을 들렀다는 기록이 전하며 임진왜란 당시 훼손됐다. 법안이 일어나면 불경의 소멸을 막기 위해 유행한다는 석경조각은 6·25 당시 보관해둔 상자가 파손되며 노선에 퇴적되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현재 석경편은 1백63상자에 1만4천여점으로 부조된 것과 선각된 문양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경관화에서 볼 수 있는 화엄변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www.kim@buddhania.com)

불교계 대명절 부처님오신날, 1600년 한국불교사 속에서 '사월초파일'이란 이름으로 국민정서에 깊숙히 각인된 뜻깊은 축제로 맞이하고 기릴 수 있게된 것은 1975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확실하게 조성됐다. 초파일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공식적인 불교계 대응은 71년 8월 조계종 총무원이 '48절 공휴일 지정'을 당국에 건의함으로써

가시화됐다. 이어 추진위를 발족하고, 72년 석주스님을 위원장으로 회의를 열고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73년 다시 정부에 건의문을 제출, 결정적으로 용태영변호사가 '석가탄일 공휴권 확인청구소송'을 내면서 마침내 75년 정부가 공휴일 선포를 했다. 크리스마스보다 무려 30년이나 뒤늦은 대접이었다.

## "종교형평 어긋나" 국가에 소송

### 20세기 불교 그 현장 그 인물 (3)

#### 초파일 공휴일 세뻐린 김선홍씨 <강화군수>

그런데 이보다 훨씬 앞서 64년 종교 형평성을 들어 '국가공휴일 지정에 관한 법률 위반'을 소장으로 행정소송을 냈으로써 처음으로 초파일 공휴일 지정과 관련된 국가를 상대로 문제 제기한 숨은 동국대 대학원생이 있었다. 당시 무종교 법학도였던 그는 현재 강화군수가 됐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개신교도이다. 불교계서 세운 동국대 법대를 나와 현대학원까지 다닌 김선홍(63세) 강화군수는 학생회장을 맡는 등 졸업 학생운동에 참여했고 6·3도 가담, 행동하는 지식 이고자 했다.



초파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데 처음 불을 지핀 김선홍 강화군수.

### 64년 동국대 법학도 시절 소 접수후 제주도로 도피

그러나 막상 소장부터 어떻게 써야하는지 막막했다. 당시 불자이자 변협서울시협회장을 지냈던 김호섭씨를 찾았다. 도움보다는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니 포기하라고 권하는 것이었고, 이후 두루 만난 법조계 인사들은 한결 같이 우려반 냉담반이었다. 어쩔 수 없이 서점에서 '서간문쓰는 법'이라는 책을 사서 그 안에서 '고소하는 법'의 내용을 교과서 삼아 법이론에 맞춰 소장을 작성했다. 막상 문제는 인지대였다. 당시 2만원은 학생신분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건 김군수, 그는 지금은 '종교 공휴일'이 국민정서 순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영란 기자 (yryui@buddhania.com)

김선홍씨는 1975년 12월 25일인대, 학교근처 명동까지 다방이란 다방은 젊은이들이 성 개방의 날이라 정해놓고 하루 임대료를 예약하느라 가관이었습니다. 당시 서양문물이 급속히 밀려들어 오면서 사회적으로 도덕 윤리 성(性)질서가 파괴에 가깝게 추락하던 때, 그 끝을 보지나 않자 우리 민족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나 싶어 참담했습니다. 제동을 걸어야겠다고, 12월25일이 공휴일이 아니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착안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살펴보니 유일하게 기독교 성당전만 공휴일로 지정돼있음이 새삼 확인됐고, 행정경찰 상 맞지 않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는 헌법 제 16조에 위배되는 것이라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잡아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 감로사 마애삼존불 조성

감로사(주지 해홍)에 부산유일의 사찰내 마애삼존불이 조성돼 불자들의 기도처가 되고 있다. 17일 봉안된 마애삼존불은 감로사 삼천불전 옆 부처바위에 중앙에 석가모니불을 좌우에 각각 아미타불과 약사여래를 조성했다. 해홍스님은 "나라의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화합을 위한 기도처가 되길 빌면서 조성했다"고 말했다.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파타센터

마스터/위즈드 김희경 상담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02)396-2736 H.P. 016-228-2358

## 부산 삼광사 열린 문화공간

### 내달1일 창립 30돌 기념법회·문화행사 결식아동·실직자돕기

1969년 창건된 천태종 삼광사(주지 덕수)가 11월 1일 30주년을 맞는다. 삼광사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앞뜰장터를 마련하여 결식아동 도시락보내기운동과 실직자돕기운동을 전개한다. 이운동은 앞뜰장터에서 판매된 농산물, 수산물, 생필품 등을 통해 수익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11월 1일 지관전에서 기념대법회와 문화행사를 치루고 문화행사와 축하공연에는 삼광사 합창단의 찬불가, 연예인 초청공연, 사물놀이등 문화행사가

다채롭다. 3만5천평에 건립된 삼광사는 1개지부, 15개 지회, 223개의 분회 조직을 갖춘 신도회를 중심으로 매일 1.2일 정기법회를 비롯 지회법회, 새신도입교법회, 봉사회 등을 통한 신도복지기는 물론 놀이방, 독서실, 서예교실, 삼광한글학교, 삼광한문서당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삼광사는 봉사단체인 부인회와 원회, 관음회, 청년회, 봉사회 등이 나환자촌 방문, 군부대위문, 군장병 수계 및 정신교육법회, 교도소 재소자 교화법회, 영세재가인 돕기 등을 실시하고 있다. 노인종합사회복지회와 건립을 추진중인 삼광사. 학술, 문화, 복지 분야를 두루 아우르는 다양한 계획과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이 높다. 천미희 기자

## 왕토 휴믹돌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왕토휴믹에 희소식!!

왕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왕토 휴믹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왕토마을

왕토마을에서는

- 왕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왕토휴믹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왕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 세존도 소원성취기도 및 방생법회 유람선취항

△ 세존도 - 500인승 사랑의 유람선 지함

여지껏 불자의 입으로만 전해오던 불가의 전설적 성지이며 소원성취한다는 석가세존의 신비를 간직한 남해의 최남단 세존도에 마침내 500인승급 대형 크루저 유람선이 취항함으로 불가의 전설적인 세존도에서 소원성취 기도 및 방생법회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남해는 신라고대사찰인 금산보리암, 용문사, 화방사가 있는 불교의 산교육장으로 고대사찰 삼사순례와 세존도 소원성취 방생기도법회는 부처님의 대자대비 하심과 불자여러분의 불심을 한층더 새로이 할 것입니다.

- 소요시간 : 왕복 3시간, (매주 일, 월요일 10시 정기운항 및 수시운항)
- 전화 : 0594) 862, 863-0947

남해해상관광레저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해수욕장

##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설악산 신흥사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권정콩' '金檀花'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작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황분을 통해 나온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뼉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변보다 더 쓰드라니까"

몸나무와 소나무의 울진과 송진을 채취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뒤 마늘, 토종꿀, 감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울진 송진 발효액과 잘 혼합하여 검정콩을 액체에 담그다가 건조해 따뜻한 온돌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벌콩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이 두번, 내지 세번 반복되며 액체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40세가 넘는 성인용의 경우 속성 기간이 족히 2개월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면 일반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겠지만 울진이 한 되에 기천만원을 호가하며 그마저도 국산 울진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 여성동아 1월호 인터뷰 내용 중 -

"선식 권정콩은 특이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중매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당뇨병, 간장병, 부인병,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상담문의 ☎ (02) 3437-8282